

Turning point는 스스로 만드는 것

대학교 2학년을 끝낼 무렵 여태까지 미뤄두고 있던, 미뤄두고 싶었던 취업이란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갓 졸업한 취준생에게도 경력을 요구하는 시대라 유학생이란 핑계로 부모님께 용돈 받으며 편하게 살다가는 이력서에 경력 한 줄 못 적을 거 같은 생각에 큰 결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믿었다.

무작정 휴학신청을 내고 한국에 오니 막막하고 시간은 흐르고 그렇게 취업사이트를 뒤적이다 마침 그 해 한국에서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통역사 채용공고가 눈에 띄었다. 한번도 가지 못했던 도시이기도 해서 호기심이 생겼고 세계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고 나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공부하고 휴학한 학생들이 다 같은 목적으로 3개월간의 여정을 함께 보냈다. 경력도 경력이지만 박람회에서 통역사로 일하면서 통역사란 직업이 꽤나 보람차다고 느꼈고 이 일을 커리어로 삼아도 좋겠다 싶었다.

그 이후로 길게는 약 1년간 영어학원에서 교사로 활동했으며 필리핀으로 돌아와 복학해서도 학기방학 중에는 통역사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기회는 문 두드리는 자에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때가 다가올 수록 모든 유학생들이 고민할 부분인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필리핀에 남아서 취업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시간이 온 것이다. 나는 졸업 전에 필리핀에서 취직을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기 때문에 취업활동 준비에 몰두했다. 한국에 비해 찾을 수 있는 채용정보가 적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잡스트리트는 물론 한인사이트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렇게 여태까지 했던 경력들을 토대로 나를 잘 어필 할 수 있는 이력서를 만들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탐색했다.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은 회사는 '삼성전기 필리핀법인' 이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 내 경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회사였다. 그렇게 채용진행은 순조롭게 갔고 졸업 전에 취업 할 수 있었다.



그림 1 삼성전기 필리핀법인 품질교육

그 안에서 품질, 기술, 생산관리, 영업부서 통·번역을 담당했고 삼성전기는 대표적인 End-to End/SCM 회사이기 때문에 담당업무 외에도 제조, 시스템, 재무, 인사 등 통·번역 업무가 모두 거쳐갈 수 있는 제조회사의 큰 틀을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3년간 일하면서 날 성장시키고 사회인으로써 성숙하게 만들어준 회사였지만 난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는 이직을 준비했다.

일전에 취업준비 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나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했고 날 필요로 하는 회사가 어딘지 탐색했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외국계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눈 여겨 봤던 외국계회사에 지인이 재직 중이었고 그분의 추천(Refer a friend)으로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다.

해당 외국계회사는 Philips(필립스)이며 SCM직무를 채용 중에 있었고 자격요건으로는 제조회사에 근무경험이 있고 필립스코리아 담당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기회라고 생각했다. 삼성전기에서 쌓은 경험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면접 시 나는 삼성전기 제조회사의 End-to End 프로세스와 SCM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할 수 있었고 나의 주요 업무였던 통·번역을 연결시켜 정확한 의사전달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 기업과 개인간의 needs, wants and demand가 서로 충족될 경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림 2 필립스 Happy Friday 이벤트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면 파고들어라

여러 기업에 면접 기회가 주어져 다녀오면 항상 느끼는 게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의 미션, 비전을 잘 알고 면접을 보러 오는 개인에 관심을 보였고 면접관들이 오히려 더 큰 열정을 보여주곤 했다.

그러므로 어떤 한 기업을 사로잡기 위해선 그 기업의 미션, 비전을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랑 미래의 내가 잘 부합하는지 스스로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 또한 면접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현란한 어휘력이 아니다. 핵심은 Job Description에 다 나와있다. 면접감독들은 응시자의 사적인 얘기, 결론이 없는 겉도는 설명을 듣고 싶지 않는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직무는 대부분 Job Description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숙지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필립스의 미션과 비전은 이와 같다.

'필립스는 의미 있는 혁신으로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연간 30억 명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실제 면접 시 나는 필립스란 기업이 목표하고 있는 기간 내에 30억 명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이어나갈 것이고 그의 따르는 내가 기업에 기여하는 모든 시간과 수고는 개개인의 생명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미 있는

성취감을 불러올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그렇게 지금 나는 필립스의 속해있는 한 멤버로써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어가며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니 행복한 책임감이 더해져 기쁘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수없이 많지만 이보다 더 설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즐겁다.